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7.(화) 배포즉시 < 6.28.(수) 조간 > 배포 2023. 6. 27.(화)

우리 기업, 미래차·보안솔루션·배터리 등으로 새롭게 변화

- 신규 고용 약 600명, 투자 약 7,000억 원 규모 사업재편계획 승인
- 10조 원 금융 지원, 「기활법」 개정 추진 등 사업재편 지원 보강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첨단 보안솔루션, 이차전지용 소재 등에서 새로운 변화 기회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 27.(화) 제3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 승인기업들은 미래차(플라스틱 소재 윈도우 등 5건), 디지털(융합 보안솔루션 게이트 등 3건), 신소재·기타(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등 4건) 분야에 진출하며 총 596명의 신규 고용과 6,874억 원의 투자를 이행할 예정이다.

차량 내·외장 제조사인 지플라텍은 경량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윈도우 글라스 대체부품 개발에 나서며, 애니셀은 정보통신/사무자동화(IT/OA)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 문서 유출 방지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전극재·형광체 등 전자제품 소재를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는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작년부터 신설된 금융권의 사업재편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승인기업 중 지플라텍, 애니셀 등 7개 사가 KB·신한·우리·하나은행 추천기업이며, 은행권 추천 승인기업은 8개월 만에 22개 사를 기록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 현재까지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중 총 20.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연구개발(R&D)·특허 등 혁신 활동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등 경영개선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활력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영진 1차관은 "경제 질서 변화와 복합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4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와 성과보수(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안용열 (044-203-4231)
			주무관	강인영 (044-203-42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붙임 1 사업재편 제도 성과분석

사업재편 추진 중 또는 완료기업 247개社 대상 조사 (산업연구원, '23.4월)

◇ 우리 기업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추진중

○ 사업재편 추진기업 중 **68.9%가** 예년보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호조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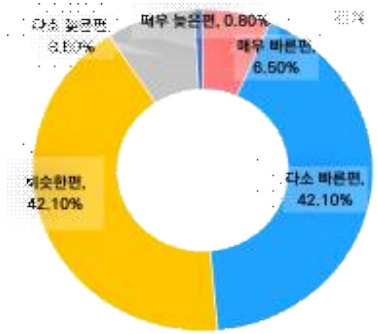
* 응답기업 中 대기업의 100%, 중견기업의 66.6% 중소기업의 67.9%가 기업실적이 악화되기 전 사업재편을 추진

○ 사업재편 추진기업 중 **48.6%**의 기업은 동종업계 대비 **빠르게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느리다고 응답한 기업은 9.3%에 불과

【사업재편 추진 시점 기업의 경영환경】



【사업재편추진 시기에 대한 인식】



◇ 특히, 기업들은 **최근 들어 사업재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 사업재편 추진 중으로 응답한 기업의 **66.0%가 2021년** 및 **2022년에 사업재편 추진**을 착수한 것으로 조사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2021~2022년 사업재편 기업 신청 급증**

◇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빠르게 진행

○ 사업재편 추진 목적은 '**신산업 진출**'이 **82.6%**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93.1%**가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을 통해 생산성 향상 추진

* 사업재편 목적 : △신산업 진출(82.6%), △과잉공급 해소(8.9%), △탄소중립 대응(4.0%), △산업 위기지역 위기극복(3.6%), △디지털 전환(0.8%)

** 생산성 향상방식 :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 (93.1%), △제품 생산·판매·제공 방식 효율화 (9.7%), △조달방식 개선(2.0%) 등 (중복선택 허용)

○ **자동차(34%), 전기전자(17%), 기계(11%)** 등 전통 **주력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 추진** 활발

– 이는 산업환경 변화가 예상되거나 **산업의 활력이 저하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친환경·전기車, LCD→OLED 전환과 같이 미래 신산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업종 중심

◇ 사업재편으로 **기업경영 조기 개선과 경쟁력 강화** 성과 뚜렷

○ 사업재편 추진기업 중 약 **41%*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8.5%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영향 없음) 55.1% (매출 감소) 4.9% 불과

○ 영업이익·고용·수출입 등 역시 **사업재편 이후 상당수 개선**된 것으로 조사

【주요 지표별 사업재편 성과】

	사업재편 이후 증가	사업재편 이후 감소	영향 없음
매 출	40.1	4.9	55.1
영업이익	36.4	8.5	55.1
고 용	42.9	6.5	50.6
수 출	32.6	3.9	63.5
수 입	18.5	2.4	79.0

○ **R&D 투자, 특허 수** 모두 '**사업재편 이후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을 상회하며,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 확인 가능

* (R&D 투자) 증가 59.5% vs 감소 2.0%, (특허 수) 증가 46.2% vs 감소 0.8%

붙임 2 제38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개요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신규 사업
미래차	지플라텍	중소	칵핏, 가니쉬 등 차량 내/외장	플라스틱 소재 차량 윈도우 글라스 대체 부품
	화인솔루션	중소	카펫·암레스트 등 차량 내장	전기차 소음저감 복합소재
	피에이치에이	중견	자동차 도어무빙 시스템	자율주행차량용 도어제어시스템
	에스피엘	중소	범퍼, 콘솔박스 등 차량 내/외장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클리닝시스템
	디젠스	중소	수소전기차 제어밸브·배기시스템 ('21.12월 승인분야)	친환경자동차 이차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변경승인)
디지털	애니셀	중소	종이문서 유출차단 장치	AI 기술 반영 융합보안 솔루션 게이트
	공앤박	중소	어학교재 개발 및 도서출판·유통	국가간 도서정보 데이터 연계 AI
	에임비랩	중소	잔량측정 라이다 활용 사료빈	사료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반 지능형 IoT 플랫폼
신소재·기타	대주전자재료	중소	전도성 전극재, 형광체 등 복합재료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코나솔	중소	압연롤, 가이드롤러 등 철강제품	중성자 흡수재 및 방탄용 알루미늄 복합소재
	블루인더스	중소	보건용 마스크	친환경 생분해 PLA 소재 적용 항바이러스 필터
	두구코리아	중소	스팀 멸균기, 믹서, 건조기 등 식품·제약·바이오 제조설비	과열증기 발생기 및 살균기